

## 2011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실적분석과 2012년도 전망

정형곤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선임연구위원 (hgjeongi@kiep.go.kr, Tel: 3460-1127)

김지연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위원 (jykim@kiep.go.kr, Tel: 3460-1055)



## 차 례 ●●●

1. 문제제기
2. 2011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현황
3. 2012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전망

## 주요 내용 ●●●

- ▶ 2011년도 북한의 무역 총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66억 6,960만 달러이며,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국가는 중국임.
  - 2011년도 북한의 무역 총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같은 해 북·중 간 무역액이 전년대비 62.4% 증가한 데 기인하며, 같은 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84.4%임.
  -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석탄, 조개탄 등의 지하자원과 반(半)제조 형태의 의류가 중심이며, 2011년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총액에서 지하자원(HS27)이 차지한 비중은 46.6%로 이는 전년대비 192% 이상 증가한 수치임.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증대는 2011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발표한 경제정책과 연계된 것으로 보임.
  - 2011년도 북한의 대(對)중국 주요 수입품에는 에너지와 식량난으로 인해 원유와 곡물, 비료가 주요 항목으로 자리잡았고, 이 외에도 북한의 낮은 산업수준으로 인하여 공산품이 주요 수입품으로 포함되었음.
- ▶ 2011년도 국제사회의 대북투자 규모는 중국의 대북투자 증대로 인해 전년대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은 전년대비 75.1% 증가한 9,820만 달러를 기록함.
  - 북·중 양국간 투자 협력은 과거 일방적인 지원형태에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공동협력 형태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기초가 나선지대 및 황금평지대 개발에서 두드러짐.
  - 2011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식량, 의약품, 의료기기 지원 등 인도주의적 지원형태로 전개되었음.
- ▶ 2012년 북한의 대외경제는 크게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 북·중 관계 △ 북핵문제 해결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임.
  - 북한은 내부자원의 한계 때문에 2012년에도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의 경제정책을 고수할 것이며, 기 합의된 나선특구 및 황금평지대 개발 사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북·중, 북·러 간 경제협력 강화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임.
  - 2012년 북·중 협력관계는 새로운 지도체제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양국간 협력관계도 지속될 전망이다.
  - 북핵문제가 정체, 악화될 경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심화되어 2012년도 양국간 무역, 투자,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의 협력국가는 남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해져서 무역에서 대중의존도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북·미 경제협력은 2012년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보다는 북핵문제 해결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 1. 문제제기

-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으로 최근까지도 빈곤의 함정 속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제1, 2차 핵실험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북한의 대외무역액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그 가운데 중국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 2009년 34.1억 달러였던 북한의 대외무역액은 2010년 50.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11년도 규모는 66.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됨.<sup>1)</sup>
  - 북한의 무역, 외자유치,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본 보고서는 북한의 2011년도 대외경제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2012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를 전망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World Trade Atlas<sup>2)</sup>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World Trade Atlas는 북한과 교역하는 국가들이 국제사회에 신고한 무역액을 집계하는 형태로 자료를 작성함.
  - World Trade Atlas가 발표한 수치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런 방식으로 추계된 통계는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2. 2011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현황

### 가. 무역

- 무역 총액
  - 2011년 북한의 무역 총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66억 6,960만 달러로 집계됨.<sup>3)</sup>
  - 2011년 북한의 수출액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대비 63.7% 증가한 31억 5,560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12.5% 증가한 35억 1,400만 달러로 집계됨.
  - 2011년도 북한의 무역적자액은 전년대비 8억 3,870만 달러가 감소한 3억 5,870만 달러를 기록함.
    - ▶ 북한의 무역적자액 감소는 북·중 무역에서 2011년도 북한의 대중국 수출규모가 전년대비 107.4% 이상 현격히 증가하였고, 또한 수출규모 증가폭이 수입규모 증가폭보다 현저히 높은 데 기인함.

1) 2009년도 수치: 코트라(2011), 『2010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0년, 2011년도 수치: World Trade Atlas(2012); 2010, 2011년도 수치는 북한의 주요 무역 대상국인 중국, 러시아, EU27, 독일, 태국,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멕시코, 인도, 네덜란드, 브라질, 알제리, 미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캐나다와 북한과의 무역액을 기준으로 산출됨.

2) World Trade Atlas(WTA)는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 Inc.(GTI)가 관리하는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임. GTI사는 100개 이상의 회원국 정부 및 산하기관들로부터 무역정보를 전달받고 있으며, 이를 집계 및 정리하여 WTA로 발표해옴.

3) World Trade Atlas(2012).

표 1. 북한의 무역 현황(2010~11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액	수입액	총액	무역수지
2011	3,155.6	3,514.0	6,669.6	-358.4
2010	1,927.8	3,124.9	5,052.7	-1,197.1

자료: World Trade Atlas(2012).

■ 중국

- 북한의 2011년 대중국 무역액은 전년대비 62.4% 증가한 56억 2,920만 달러임.
- 2011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7.4% 증가한 24억 6,420만 달러이며, 같은 해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38.9% 증가한 31억 6,500만 달러로 집계됨.
- 같은 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액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3억 8,910만 달러 감소한 7억 80만 달러를 기록함.
- 북한의 2011년도 대외무역 총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84.4%이며, 이는 전년대비 15.8% 증가한 수치임.

표 2. 최근 3년간 북한의 대중국 무역 추이(2009~11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 구분	수출	수입	총액	무역수지
2009	500.6	1,209.6	1,710.2	-709.0
2010	1,187.9	2,277.8	3,465.7	-1,089.9
2011	2,464.2	3,165.0	5,629.2	-700.8

자료: World Trade Atlas(2012).

- 2011년도 북한의 무역 총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중 간 무역액이 증가한 데 기인함.
- 2011년도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15.8% 증가한 반면, 총액 면에서 양국간 거래규모는 전년대비 62.4%(21억 6350만 달러) 증가함.
-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지하자원을 제외하고 반(半)제조 형태의 의류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원유를 제외하고 자동차, 비료 등 완제품들임.
-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 광물성연료, 에너지(HS27) △ 광, 슬랙, 회(HS26) △ 편물제 이외의 의류(HS62)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 광물성연료, 에너지(HS27) △ 보일러 기계류(HS84) △ 전기기기, TV, VTR(HS85) 등임.
- 북한이 수출하는 광물성연료, 에너지(HS27)는 석탄, 조개탄(HS2701)과 같은 지하자원이며, 수입하는 광물성연료, 에너지(HS27)는 원유(HS2709, HS2710)임.

표 3. 2011년도 북한의 주요 대중국 무역품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감율(%)	품목	금액	증감율(%)	
HS2	1	광물성연료, 에너지(HS27)	1,149.1	189.6	광물성연료, 에너지(HS27)	771.0	61.0
	2	광, 슬랙, 회(HS26)	405.7	61.5	보일러, 기계류(HS84)	277.3	13.1
	3	의류(편물제이외)(HS62)	356.9	122.3	전기기기, TV, VTR(HS85)	251.5	31.9
	4	철강(HS72)	154.8	42.6	일반차량(HS87)	220.6	38.1
	5	어패류(HS03)	82.8	39.0	플라스틱과 그 제품(HS39)	110.9	31.4
	6	아연과 그 제품(HS79)	65.3	37.0	인조필라멘트 섬유(HS54)	109.7	38.2
	7	의류(편물제)(HS61)	57.6	122.8	곡물(SH10)	102.3	71.2
	총액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 %)		2,272.2 (92.2%)		총액(전체 수입에서의 비중 %)		1,843.3 (58.2%)

주: 증감률(%)은 전년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World Trade Atlas(2012).

- 북·중 무역 품목은 북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 북한의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규모는 중국의 나선 지대 및 황금평지대 개발 등 북한 내 인프라 개발과 맞물려 증대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1, 2차 산업에 기반을 둔 품목들임.
  - ▶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동북3성 개발과 연계해 나선지대 및 황금평지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의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시설을 구축, 개보수하고 있음.
  - ▶ 북한은 두 지대의 인프라개발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나선·황금평지대 개발권과 나진항과 선봉항, 청진항 사용권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광산의 채굴권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 ▶ 2011년도 북한의 대(對)중국 광물성연료, 에너지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189%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이 지하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과 연계됨.
- 2011년도에도 북한의 주요 대중(對中) 수입품은 에너지난과 식량난을 반영하여 원유와 곡물, 비료가 중심이 되었으며, 이 외에도 공산품이 주요 수입품을 구성하고 있음.
  - ▶ 2011년 북한의 대중국 전체 수입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원유(HS27)(24.3%)임.
  - ▶ 지난 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곡물과 비료의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식량수급 과정에서 북한의 대(對)중국 의존성 심화를 보여주는 단서임.<sup>4)</sup>
  - ▶ 한편 북한은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및 전자기기, 차량 등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2011년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은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어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EU 27개국

- 2011년 3/4분기까지 북한의 대EU 무역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43.4% 감소한 1억 460만 달러임.<sup>5)</sup>

4) 수입액뿐만 아니라 곡물(HS10)과 비료(HS31)의 총수입량(量)도 전년대비 각각 33.3%, 24.0%씩 증가함.  
5) World Trade Atlas(2012), 2012년 2월 17일 기준으로 World Trade Atlas가 발표한 EU 통계수치는 2011년 9월까지 자료임.

- 같은 기간 북한의 대EU 수출액은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38.1% 감소한 7,400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59.4% 감소한 3,060만 달러임.

표 4. 최근 3년간 북한의 대EU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구분	수출	수입	총액	무역수지
2009		70.4	100.1	170.5	-29.7
2010(2010.9까지)		132.8(119.6)	89.0(75.4)	221.8(195.0)	43.8
2011.9까지		74.0	30.6	104.6	43.4

자료: World Trade Atlas(2012).

- 북한의 EU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의류(HS62), 토석류 및 소금(HS25)이며, 주요 수입품은 보일러, 기계류(HS84), 의약품(HS30), 산수목과 꽃(HS06) 등임.<sup>6)</sup>
- 의류(편물제 이외)와 토석류, 소금이 2011년 9월까지 수출된 금액은 북한의 대EU 전체 수출액의 52.8%이며, 보일러, 기계류 및 의약품이 같은 기간 수입된 금액은 북한의 대EU 전체 수입액의 34.3%를 차지함.
  - ▶ EU는 다자간 섬유협정 하에 쌍무협정(MFA: Multilateral Fiber Agreement)을 체결하여 공동체 차원에서 섬유류 무관세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무관세로 EU에 수입 가능한 북한섬유 품목은 48개 임.<sup>7)</sup>
  - ▶ 비록 북한이 EU로부터 섬유류 쿼터제 혜택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북한은 MFA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다른 회원국들이 받는 대우보다 낮은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음.
- 2011년도 북한이 EU로부터 기계류를 수입한 금액은 전년대비 52.5% 증가한 반면, 의약품과 산수목, 꽃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78.3%, 88.2% 감소함.
  - ▶ 북한과 EU 간의 2011년도 무역 총액은 감소한 반면, 북한의 EU로부터의 기계류 수입액은 증가함.

#### ■ 러시아

- 2011년 9월까지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8.9% 감소한 9,180만 달러임.
-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57.8% 감소한 970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5.7% 증가한 8,210만 달러임.
- 2011년도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액 감소는 북한의 채무문제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규모 감소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 ▶ 2011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하여 러시아 재무차관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과거(구)소련에 진 110억 달러 빚에 대한 채무상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발표함.<sup>8)</sup> 이는 북한의 채무문제가 양자 간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서로 풀이됨.

6) World Trade Atlas(2012).

7) EC 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2011. Notice to Importers 2798 issued on 19 December 2011 by Import Licensing Branch. Retrieved on February 21, 2012 from <http://www.bis.gov.uk/assets/biscore/international-trade-investment-trade-investment-and-development/docs/n/notice-to-importers-2798-imports-restricted-textiles-clothing-north-korea-2012.pdf>

8) 연합뉴스(2011. 8. 24).

- ▶ 2011년 9월까지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7.8% 감소하였는데 북한의 수출액 감소도 2011년 도 북·러 양국간 무역액을 감소시킨 요인으로 작용함.

표 5. 최근 3년간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 구분	수출	수입	총액	무역수지
2009	20.6	41.1	61.7	-20.5
2010(2010.9까지)	27.0(23.0)	83.6(77.7)	110.6(100.7)	-56.6
2011.9까지	9.7	82.1	91.8	-72.4

자료: World Trade Atlas(2012).

-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 토석류, 소금(HS25) △ 화학공업 생산품(HS38) △ 전기기기, TV, VTR(HS85)이며, 주요 수입품은 △ 광물성연료, 에너지(HS27) △ 곡물(HS10) △ 곡물분, 조분밀가루, 전분(HS11) 등임.<sup>9)</sup>
- 2011년도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은 화학공업 생산품을 제외하고 40% 이상 감소한 반면, 대러시아 수입액은 곡물을 제외하고 30% 이상 증가함.
- 특히 곡물분, 전분의 수입은 전년대비 997%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1년도 신의주 지역 홍수 등 자연재해로 북한의 식량수급사정이 악화된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됨.

#### ■ 미국 및 일본

- 2011년도 북한의 대미 무역 총액은 940만 달러로 전년대비 494.9%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대미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임.
-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미교역은 북한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만이 있을 뿐 북한의 대미 수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이는 미국정부의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에 기인함.
-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북한의 대미 무역 총액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원인은 북한의 대미수입액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며, 수입액 증대는 미국 내 비영리단체 및 일부 기관들의 대북지원 증대에 따른 결과로 추정됨.
  - ▶ 미국이 북한에 수출한 품목은 △ 의약품, 의료기기, 기증물품 등으로 구성된 기타교역 품목(HS98) △ 곡물, 곡분의 주 제품과 빵류(HS19) △ 육, 어류 조제품(HS16)이며, 이들 품목들은 인도주의 지원품목으로 구분됨.
  - ▶ 따라서 북한의 대미수입은 미국 내 비영리단체 및 일부 기관들이 대북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품목들이 세관통계에 반영된 결과로 추정됨.<sup>10)</sup>

9) World Trade Atlas(2012).

10)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외에도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이 적용하는 대북제재에는 북한에 대한 원조금지도 포함됨. 미국의 대북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전개될 경우 세관업무로 처리되지 않고 USAID나 해당기관의 통계로 처리, 발표되나, 미국의 대북지원은 대부분이 비정부기구 또는 특정기관, 개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반출하는 물품들은 세관을 통과하게 되며 결과 해당품목들이 무역통계로 잡힘.

표 6. 최근 3년간 북한의 대미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 구분	수출	수입	총액	무역수지
2009	-	0.9	0.9	-0.9
2010	-	1.9	1.9	-1.9
2011	-	9.4	9.4	-9.4

자료: World Trade Atlas(2012).

- 북한의 대일본 무역은 2010년 이후 수출입 모두 전면 중단됨.
- 북·일 무역은 2002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시인하면서 감소함.
-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일본은 납치자 문제와 함께 북한에 대한 송금규제, 무역제한, 선박의 통행제한 조치 등을 실시하였고 이는 2007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전면중단을 야기함.
- 2009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시켰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함. 이후 북한의 대일 수입은 전면 중단됨.

#### ■ 기타

- 기타 북한의 주요 무역대상국은 △ 스리랑카 △ 홍콩 △ 인도 △ 브라질 △ 태국 △ 독일 △ 멕시코 △ 이탈리아 △ 말레이시아 △ 네덜란드 △ 캐나다 △ 알제리 △ 싱가포르 등이 있음.
- 스리랑카는 2011년도 북한의 10대 무역 대상국으로 새롭게 편입되었으며, 2011년도 북한의 대스리랑카 무역 총액은 전년대비 968.5% 증가한 4억 338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sup>11)</sup>
  - ▶ 주요 수출품에는 △ 광물성연료, 에너지(HS27) △ 보일러, 기계류(HS84) △ 철 강(HS72)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품에는 △ 고무와 그 제품(HS40) △ 편물제 이외 의류(HS62) △ 마류의사와 직물(HS53) 등이 있음.
  - ▶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은 중국을 넘어 스리랑카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對)스리랑카 광물자원 수출액 증가는 2011년도 양국간 무역규모를 전년대비 증가시킨 요인의 일부로 작용함.<sup>12)</sup>
- 2011년도 북한의 대홍콩 무역 총액은 전년대비 237.5% 증가한 1억 430만 달러임.
  - ▶ 주요 수출품에는 △ 전기기기, TV, VTR(HS85) △ 귀석, 반귀석, 귀금속(HS71) △ 보일러, 기계류(HS84)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품에는 △ 전기기기, TV, VTR(HS85) △ 담배(HS24) △ 육과 식용설육(HS02) 등이 있음.
- 이 외 북한의 주요 무역국가에는 △인도 △ 브라질 △ 태국 △ 독일 △ 멕시코 △ 이탈리아 △ 말레이시아 △ 네덜란드 △ 캐나다 △ 알제리 등이 있으며, 이들과 북한과의 무역규모는 1억 달러 미만임.
  - ▶ 2011년 북한의 대(對)인도 무역 총액은 9210만 달러, 대(對)브라질 무역액은 6,530만 달러, 대(對)태국 3,640만 달러, 독일 2,520만 달러, 멕시코 2,460만 달러, 네덜란드 1,910만 달러, 캐나다 1,850만 달러, 알제리 570만 달러, 이탈리아 540만 달러, 말레이시아 420만 달러 등임.
  - ▶ 북한과 기타 무역대상국 간의 주요 거래 품목은 기계류, 자동차, 광물성연료·에너지, 예술품, 모피제품, 식품류, 토석류·소금, 유기무기 화합물 등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무기, 마약밀매 등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짐.

11) World Trade Atlas(2012).

12) 2012년도 광물자원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827.7% 증가함.

## 나. 투자 및 원조

- 북한의 2011년 외자유치 총액은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우나,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그 규모가 전년과 비교해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유치한 외자총액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대비 3,800만 달러이며, 같은 해 중국이 북한에 투자한 금액은 1,210만 달러로 집계됨.
  - 2011년 중국은 창지투 개발사업 및 요녕성 연해경제벨트 개발사업과 나선지대 및 황금평지대 개발을 연동하여 지대 내 인프라 구축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음.
    - 예를 들면, 2011년 중국은 자본을 투입하여 북한의 원정리-나진항 구간의 도로를 확장, 포장하였고, 나진항 부두 개조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나선특구 내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시설 건설을 착수하였음.<sup>13)</sup>
    - 같은 해 중국과 북한은 단천항 공동개발을 합의하고, 중국은 자기자본을 투입하여 훈춘-나선-청진을 잇는 도로건설과 청진항과 단천항의 항만 확장, 보수사업을 착수하였음.<sup>14)</sup>
  - 북한의 주요 투자기업인 이집트의 오라스콤사 역시 북한에서의 휴대전화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대북투자 확대 의지를 표명함.
    - 2011년 4월 오라스콤사는 류경호텔 외부공사에 1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류경호텔 내 휴대전화 영업소 설치계획을 발표함.<sup>15)</sup>
    - 북한 내 오라스콤 텔레콤을 이용하는 휴대전화 사용자는 2012년 2월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 텔레콤 회장은 같은 해 2월 북한을 방문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북투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sup>16)</sup>
-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2011년 북한의 외자유치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됨.

표 7. 최근 3년간 북한의 외자유치 총액 변화 추이(2008~10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국제사회 <sup>1)</sup> (종합)	투자액	44.0	2.0	38.0
	증가율(%)	-34.3	-95.5	1,800.0
중국-북한 <sup>2)</sup>	투자액	41.2	5.9	12.1
	증가율(%)	123.9	-85.7	105.1

주: UNCTAD가 발표한 국제사회 수치는 유엔회원국이 보고한 수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중국이 유엔회원국임을 감안할 때 UNCTAD가 발표한 통계에는 중국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정확히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었다면 그 수치는 얼마인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자료: 1) 국제사회 수치는 UNCTAD(2011), World Investment Report 인용,

2) 중국-북한 수치는 CEIC(2012) 인용.

13) 연합뉴스(2011. 12. 23); 연합뉴스(2011. 24); 연합뉴스(2011. 8. 22).

14) 연합뉴스(2012. 2. 3); 연합뉴스(2012. 2. 2); 연합뉴스(2011. 11. 15).

15) 연합뉴스(2011. 8. 3).

16) 연합뉴스(2011. 7. 28); 연합뉴스(2011. 10. 28); 연합뉴스(2012. 1. 20).

■ 2011년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총액은 9,820만 달러임.

- 2011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은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년대비 75.1% 증가한 9,820만 달러임.<sup>17)</sup>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식량,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지원이 중심이며, 지원규모는 북핵문제 및 환경요인에 따라 달라짐.
- 2009년 5월 북한의 2차 지하 핵실험이 감행되고,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며,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면서 2010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은 전년대비 급격히 감소함.
- 이후 2010년 8월 압록강이 범람하여 북한의 홍수피해가 심각하고, 2011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식량지원을 요청하면서 2011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은 전년대비 증가됨.

표 8.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 변동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원액	총액	61.3	24.5	98.2
	증가율(%)	7.5	(150.2)	75.1

자료: UNOCHA(2012), Financial Tracking Service.

- 2011년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총액 가운데 국제기구를 통해 전달된 금액은 4,670만 달러이며, 개별 국가를 통해 전달된 지원액은 5,150만 달러임.
- 2011년도 주요 공여기관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식량기구, 유엔, 유럽연합 집행기관, 유엔 식량농업기구, 유니세프이며, 이들을 통해 전달된 금액은 총액의 47.6%를 차지하는 4,670만 달러임.
- 같은 해 주요 공여국은 스웨덴, 스위스, 호주, 러시아, 브라질 등이며, 이들의 지원액은 5,150만 달러임.

표 9. 주요 대북지원 공여기관 및 공여국 명단과 지원액

(단위: 백만 달러)

주요 공여기관	금액(비중*)	주요 공여국	금액(비중)	주요 공여국	금액(비중)
세계식량기구(WFP)	16.6	스웨덴	8.9	인도	1.0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15.4	스위스	8.4	핀란드	1.0
유럽연합 집행기관(EC)	14.3	호주	7.1	프랑스	0.7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0.2	러시아	5.0	룩셈부르크	0.6
유니세프(UNICEF)	0.2	브라질	4.0	아일랜드	0.4
-	-	노르웨이	2.7	덴마크	0.2
		이탈리아	1.7	남아프리카	0.1
		독일	1.5	캐나다	0.1
		중국	1.0	기타**	7.14
합계	46.7(47.6)	합계	51.5(52.4)		

주: 1) \* 비중은 전체 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2) \*\* 기타는 구체화되지 않은 공여자, 공여기관들  
 3) 이 외에도 6만 달러 미만의 공여국으로 헝가리와 리히텐슈타인이 있음.  
 자료: UNOCHA(2012), Financial Tracking Service.

17) UNOCHA(2012), Financial Tracking Service.

### 3. 2012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전망

#### ■ 북한의 경제정책

- 2012년도 북한은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가져올 것임.
- 2000년대 이후 북한은 내부자원의 한계로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전략을 추구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12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2012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협력은 전년도에 시작한 나선 및 황금평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과의 경협은 강화될 것임.
- 최근 추진되는 두 지대 개발은 정부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2012년 김정일 유훈통치에 따른 기존의 경제정책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12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김정일이 제시한 경제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sup>18)</sup>
- 북한은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 강국의 토대 마련과 김정일의 방중 성과를 2011년도의 주요 성과로 평가하였는데, 경제 강국의 토대 마련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증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2012년 북한은 기존의 자립경제정책 노선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경제교류 규모를 늘려갈 것으로 보임.

#### ■ 북·중 관계

- 2012년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제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북·중 협력관계는 새로운 지도 체제에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일 위원장은 마지막 방중에서 차기 총리인 리커창 상무부총리 겸 공산당 상무위원과 중관춘을 동행하였으며,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발표 직후 4대 권력기관 명의로 조전을 보내며 양국 우호관계를 나타냄.<sup>19)</sup>
- 중국은 경제난으로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김정은 지도체제가 안착되는 것을 도우면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나선 및 황금평 개발에 대한 사업내용도 구체화되고 양국간 협력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 중국의 대북투자 규모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 2012년 2월 중국은 나선항 46호 부두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확보한 대가로 나선특구 내 비행장과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중국 도문과 나선특구를 연결하는 철도도 건설하며, 또한 대북 인프라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결제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과 조선건설은행을 설립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sup>20)</sup>

#### ■ 북·러 관계

-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규모는 북핵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이상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8) 통일부(2012. 1. 1), 『북한의 2012년도 신년공동사설 관련 참고자료』.

19) 연합뉴스(2011. 12. 22); 연합뉴스(2011. 5. 26).

20) 연합뉴스(2012. 2. 15).

- 2011년부터 러시아는 나진항 개발과 연계해 대북투자를 재개하고 있으며, 2012년도 북·러 양국간 무역액은 러시아의 대북 투자에 힘입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 2011년도 체결된 양국간 합의내용은 2012년도 러시아의 대북투자가 증대될 것을 예상하게 하는데, 우선 러시아는 나진항 3호 부두의 사용권을 확보한 대가로 2011년부터 하산나진 구간의 철도 개보수공사를 시작하였고, 2012년에는 나진항 3호 부두 개조 및 나진역나진항 연결철도 보수공사를 시작하기로 북한과 합의함.<sup>21)</sup>

#### ■ 북·EU 27개국 관계

- 2012년도 EU 회원국들의 대북무역과 대북투자는 북핵문제 해결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EU 회원국들의 대북무역과 대북투자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역 및 투자규모는 크게 변화되기 어려울 것이며, 북핵문제가 해결구도에 진입한다 하여도 EU 회원국들의 대북무역 및 대북투자는 서서히 증대될 것으로 보임.

#### ■ 북·미 관계

- 2012년도 북·미 양국간 경제협력은 북핵문제와 양자 간 관계개선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 양자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김정은 지도부가 이에 동참할 경우, 이와 함께 북한이 핵문제 해결과 연관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경우 북·미 관계는 개선될 것이며, 이는 양국간 무역규모와 미국의 대북투자 규모 증대를 가져올 것임.
  - ▶ 북한의 대미수출은 낮은 산업경쟁력과 취약한 산업기반 시설 등으로 인해 원료(Raw Materials)나 반(半)제조 물품이 중심인 반면, 북한의 대미수입은 고도의 산업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산품 위주가 될 것으로 보임.
  - ▶ 미국의 대북투자는 북한의 산업기반시설 구축과 인적자원 개발에 중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양자관계가 개선된다 할지라도 양국간 경제협력 규모는 서서히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 베트남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북·미 양국간 경제협력은 미국이 국내법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적용하는 대북제재들을 철회하고, 북·미 수교를 거쳐 양국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북핵문제가 현재와 같이 정체되어 있거나 또는 악화된다면 양국간 경제협력 규모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 북·일 관계

- 북·일 경제협력은 북핵문제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과 일본 간의 무역, 투자, 지원규모는 현재 전면중단에서 재개되겠지만, 그 수준은 과거의 양국관계가 정상이었을 때 진행되던 수준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양국간 경제협력은 북핵문제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해결된 이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됨. **KIEP**

21) 연합뉴스(2011. 8. 22).